

2) 석 탑

(1) 동화사 삼층석탑

대웅전 앞에 위치한 이 석탑은 기단부 상단의 중대석 이하 약 150cm 가량이 매몰된 상태로 있다가 1989년에 해체, 복원되어 지금은 원상태로 서 있다.

이 석탑은 2층 기단 위의 삼층석탑으로 일반형 신라 석탑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보기 드물게 상륜부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고려시대 일반형 석탑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지대석은 4개의 장대석으로 짜고 그 위에 2층 기단을 올려놓았는데, 기단면석에 양 우주와 탕주 1개가 모각되었다. 갑석은 윗면의 경사가 심하고 네 귀퉁이의 합각선이 뚜렷하며 그 중앙에는 2단의 괴임대를 만들어 위층 부재를 받치고 있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이 각 1석씩으로 되어 있으며 각층 탑신에는 양 우주가 정연하다. 1층 탑신과 2층 탑신의 체감비율은 2.7 대 1로 높은 편이다. 옥개석은 층급받침이 1층 4단이고, 2~3층은 3단으로 줄었고 윗면에는 1단의 각형 괴임을 조출하였다. 낙수면은 윗부분에서 약간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네 귀퉁이 전각의 반전이 심하여 전체적으로 경쾌한 탑신부를 이루고 있다. 상륜부는 노반 위에 복발과 양화·보륜·보개를 갖추었으며 보주가 유실된 듯하다. 석탑을 해체하여 복원하는 과정에서 1층 탑신의 상면 사리공에서 청자 사리함, 금동제 삼층보탑, 녹색 사리병, 사리 3과, 옥석제 염주 33알, 자수정 1개 등의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석탑의 조성연대는 동화사의 창건기록과 석탑의 세부기법으로 보아 고려 초기로 추정된다. 현재 탑의 전체 높이는 5.23m 이고, 1985년 1월 8일에 보물 제831호로 지정되었다.

(2) 향림사(香林寺) 삼층석탑

향림사 삼층석탑은 대웅전 앞마당 좌우에 1기씩 2기가 나란히 서 있다. 이들 석탑은 그 규모나 형식이 거의 동일하며, 제작기법 또한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방형 2단 각형의 지대석은 밑부분이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 현재는 알 수 없다. 지대석 위의 기단면석은 4매의 판석을 결구하였는데, 양 모서리에는 우주가 있고 가운데는 탕주가 1개 모각되었다. 기단갑석은 1매 판석으로 하였는데 하면에는 큼직한 각형의 부연(副椽)이 있고, 상면에는 각호각형의 괴임대가 있어 탑신을 받고 있다. 그리고 괴임대의 모서리부분에서 갑석의 합각부분으로 내려오면서 희미하게나마 우동이 표현되어 있다. 1층의 탑신석은 전체 높이에 비해 높은 편이며 양 모서리에 우주가 모각되었다. 옥개석은 높은 편으로 3단의 각형 층급받침이 있고 상면에는 각형 1단의 탑신받침대가 모각되어 있으며, 낙수면은 급경사가 아니고 전각은 거의 반전이 없는 편이다. 1층과 2층의 탑신비는 2 대 1로 체감비율이 높다. 2층과 3층의 탑신석과 옥개석의 형식은 1층과 같다. 다만 2기 모두 2층 옥개석의 일부분이 약간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나 형식 파악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옥개석 모서리부분에 풍경을 달았던 흔적인 구멍이 모두 있다. 상륜부는 간략화되어 방형의 2단 복발과 연꽃봉오리 모양의 보주가 있을 뿐이다.

이 같은 형식을 가진 향림사 삼층석탑은 고려시대 일반 형식 탑의 양식적인 특징을 구비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단층기단, 옥개석의 3층급받침, 상륜부의 간략화, 탑 규모의 왜소

화 그리고 안상이나 문비 등의 장엄조식이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성시기는 고려 후기로 추정된다.

현재 탑의 전체 높이는 3.4m 이고, 1985년 2월 25일에 전라남도 지방유형문화재 제116호로 지정되었다.